



멀지만 가족



가깝지만 먼 사이, 다 알면서도 잘 모르는 사이, 닮았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에 대한 마음이 복잡 미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너무 사랑하고 애뜻하다가도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고 밋고 원망스럽다가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 또 가족이다.

스물여섯에 결혼해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 가족을 생각하면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독립해서 내 집, 내 남편과 사는 것은 참으로 신세계였다. 남편이야 대학, 군대, 유학 생활을 하느라 나보다 먼저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전까지 부모 슬하에 있었던 나에겐 그야말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다. 단둘이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재미있고 편안했다. 그렇게 둘만 있는 것이 좋아서 무슨 일이 없으면 굳이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

다시 부모님 집으로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자식이 늘어나면서부터이다. 둘, 셋, 넷으로 아이가 늘어나면서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애 많은 우리 식구를 반겨줄 곳은 많지 않았다. 부모님 집에 가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매번 선물을 잔뜩 받아왔고 나와 남편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밥도 먹을 수 있었고 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 때문에 2017년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시댁과는 가까워졌지만 친정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한국을 방문하셨지만 엄마와 동생들은 6년간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 겨울에 미국에

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고국을 방문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않느냐며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을 성사시킨 것은 다름 아닌 막내 동생이었다.

제주도 사는 오빠네 식구가 빠졌지만 6년 만에 모인 우리들은 가족사진도 찍고 맛집과 카페도 가고 유희 파티도 하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식구들도 모두 모였다. 사정상 못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만하면 훌륭한 출석률이였다. 2018년인가 아버지 생신 겸 추석으로 우리 집에서 모인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다. 원래 조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받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때는 더 자주 왕래했었지만 1992년에 우리 가족이 이민을 가고 1999년에 할머니가 cheating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족 모임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독립한 이후 내 가정은 꾸렸지만 형제자매, 친척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자주 연락도 못하지만 그들을 톡톡리미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아이,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나마 이 세상에 나와 제일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의 눈빛만 봐도 인생의 굴곡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내 편으로 나를 응원해 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족이 있어 참으로 든든하고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게 행운이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시댁은 멀수록, 털 만날수록 좋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남편 가족 모임도 좋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를 통해 이야기로만 들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꽤나 재미있고 반가운 일이다. 마침 얼마 전에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온 가족이 출동했는데 오랜만에 결혼식을 보는 것도 좋았고 (언제 부턴가 결혼식 돌잔치 초대가 딱 끊김)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등장하는 옛날옛적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도 재미있었다.

가족과 함께 매일 부대끼며 살 때는 쉽지 않았지만 정해진 공간에 누군가와 너무 가깝게 생활한다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결혼이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관계의 마찰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여기서 대부분의 갈등이 시작되니까.

가족이라 하면 흔히들 남보다는 더 자주 만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되면 생각만큼 자주 만나지 않는다. 남은 생애 나의 친인척들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조금해진다. 무리를 해서라도 가족 모임을 더 자주 추진하고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말연시에 가족 만남은 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과 좋은 에너지를 안겨주었고 올해도 다시 가족을 만날 희망을 품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겠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